# 서삼석 의원, 수확기 비축미 공매 철회 촉구

## 시장가격 안정화 조절 실패 시 농민 공분만 사고 불신 가중

## 2016년~17년 폭락 후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확기 정부 벼 공매 계획에 대해 정부가 쌀값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비축미를 공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벼 비축미 공매가 자칫 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쌀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공매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 벼 공매는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미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은 2013년도 17만5094원(80㎏, 정곡기준)이 2016년도 13만9716원, 2017년도 13만4922원으로 폭락했다. 올해는 11월5일 기준 19만3696원으로 전년대비 27.5%, 평년 대비 24% 상승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오는 22일자로 2017년산 정부 비축벼 173만6110포대(조곡 40㎏) 5만톤(정곡)의 공매 실시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서 의원은 "평균 쌀값이 2013년도 대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례가 없이 폭락(20.2%~22.9%)하였음에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와 쌀 목표가격 80㎏ 24만원 보장을 요구하며 민주당 전남도당 점거농성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별로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으로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목표가격 24만원 보장, 수확기 정부의 쌀 방출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류춘범 기자(사회국장)

# 전경선 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촉구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이유 매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동결

전남도의회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민주당/목포5)은 지난 1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국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인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복지관련 각 센터 운영비 예산증액과 관련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규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국이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지침이나 규정을 이유로 네거티브 마인드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인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시설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 고사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민행 대표기자

# 김성일 도의원, 기자회견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 촉구

## 전남도의회 "쌀 목표가격 24만 원 이상 되어야"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19일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쌀 목표가격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면서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 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도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밥 한 공기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실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농가 경영비용은 계속 오르는 데 소득은 수십 년 째 정체 상태다"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80kg을 기준으로 한 쌀 목표가격의 단위 기준도 도소매가격 기준과 소비자 쌀 소비추세에 맞게 20kg으로 바꿔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 박종원 도의원, 전남도 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미흡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26명 직원 중 70여명 비정규직

박종원 도의원(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6명의 직원 중 7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또, 프로젝트성 비정규직의 경우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전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센터장 공모시 조직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종원 의원은 "6개의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조직의 융화이다"며,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 蘆嶺敲

이 민 행

CEO 편집인

## 能保我子孫黎民 자손과 백성을 이롭게 하자

### ◈축산자원개발부 함평군 유치

농림식품부 산하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지난 22일 공식적으로 함평군 신광면 일대에 유치하기로 '우선협상 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육종 개량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젖소와 돼지에 대해 박사 등 183명의 연구진과 축사관리 · 초지관리 등을 위해 많은 종사자가 근무한다고 한다.

이전부지는 초지 418ha 등 최소 536ha가 필요하며, 수자원이 풍부해야 하는데 인근에 동정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지리적 요건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한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 신광면의 인구는 19000여명으로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대비하면 향후 10년 후면 10000여명도 안 될 실정이며, 특히 송사 · 동정 · 보여리의 인구수는 346명이며 65세 이상이 14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터전이 사라진다는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유치가 확정되면 이주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정착촌 건립을 요구하여 고향을 바라보며 살 수 터전을 마련함으로서 다소나마 실향민의 아픔을 덜었으면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주민 정주대책으로 공공주택 등 정착촌을 건립을 지원하고, 이전기관 직원이 거주하는 나공동주택 등을 건립한다고 하니 지켜보며 이주민의 요구 조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함평군도 기왕 축산자원개발부가 입주하게 되면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실향의 아픔을 치유할 철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많은 인력이 소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대학에 "以能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이능보아지손여민 상역유리재). 우리 자손과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으면, 또한 이로움이 있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 ◈무안군 축제 진로

무안군이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지역신문사에 위탁해 50여명을 초청해 무안군이 주최하는 연꽃축제와 황토갯벌축제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것인지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고 한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는 전문가 · 교수 · 공직자 등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자리를 떴다는 후문이고, 특히 주무부서 과장도 저녁에 자리를 비웠다고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남아 있는 초청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글쓴이는 무안연꽃축제를 백련지 중심에 사찰도 건립하고 청동대불도 조성하여 무안군 주최, 조계종 주관으로 5월에 개최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산백련지 둑을 따라 물 차단벽을 설치해 온실 2동을 시설하여 1개동에는 조기 개화하는 강화도 연을 이식하고, 또 하나 동에는 각종 연을 재배하여 5월에 개최하는 것이다. 5월쯤이면 연잎이 백련지를 메워 연잎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도 볼거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다. 무안군이 행사장을 마련해 주고 행사는 조계종에서 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날 · 어버이날 등 행사가 많은 특징이 있고, 인근 함평군에서 '나비축제'를 하는 시기로 상호 보완 관계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초대 김봉열 영광군수는 개신교 안수집사로서 '마라난타 존자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종교에서 군수실 점거 등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오늘날 영광군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는 발상전환의 시책으로 크게 평가받고 있다.

황토갯벌축제도 9월 개최는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 축제를 존속 시키려면 갯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8월로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제 명칭만 황토이지 황토와 관련 다양한 체험장도 없는 실정이고, 갯벌도 낙지 · 농게잡이 등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필자는 황토갯벌축제는 캠핑장도 있으니 상시 체험장으로 개방하고, 10월경에 무안읍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무안군은 군수를 비롯한 의회에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축제를 위해 귀를 크게 열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선진축제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력을 배워야 할 것이다.

목민심서에 "左右近習知言 不可信聽 雖若閑話 皆有私意(좌우근습지언 불가신청 수약한화 개유사의). 주위에 늘 가까이 있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나누는 대화일지라도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게 마련이다."고 했다.

주간 蘆嶺新聞 www.rorynews.kr

대표 임재상 · 편집인 이민행

E-mail:muan3521@hanmail.net/hpcj3355@naver.com

신문윤리강령

주간 노령蘆嶺은 신문윤리 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대변할 것입니다.

•등록번호 : 전남 다 0031
•발 행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2길 15
•인 쇄 소 : 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인길93-10)

구독료 : 월 5,000원
납부계좌 : 농협 351-0934-9171-73 (예금주 주간노령)